

# PACKAGING NEWS



## 협회 · 회원사

(사)한국포장협회 2022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사)한국포장협회 '2022년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추진  
박기출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수상  
세미산업(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수상  
동원시스템즈 2차전자용 원통형 배터리 캔 양산 돌입

## 업계

농촌진흥청 식품원료 이용 코팅기술, 소고기 품질유지 효과  
자원순환산업인증원 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한·중·일 수출입 파렛트 재사용 활성화 연구' 수행  
(재)전남테크노파크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를 위한 지역기업 R&D 지원  
한화솔루션 재생 소재로 친환경 포장재 시장 진출  
LG화학-이너보틀-CJ대한통운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MOU 체결  
LG생활건강 제품에 ESG 경영 담은 '클린뷰티 인사이트' 시스템  
농심 등지냉면 포장 간소화  
네슬레코리아 지구의 날 맞아 지속가능성 활동 및 성과 공유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과 '화장품 공병 재활용 소재 사용' 협약 체결  
한국콜마 글로벌 화장품 패키징전문기업 '연우' 인수



**(사)한국포장협회**

**2022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기업의 녹색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회원사와 함께 ‘2022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경영 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업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협회는 참여희망 회원사 모집 및 신청, 참여기업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3월 참여희망 회원사 10개사를 모집했고, 컨설팅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컨설팅사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ESG 컨설팅 지원,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수행한다.

(사)한국포장협회 관계자는 “오늘날 ESG경영은 기업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ESG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협회**

**‘2022년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추진**

워라벨 문화 확산에 앞장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회원사를 비롯한 포장업계에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문화 실천’을 확산하는 것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4월 28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회원사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별 특성에 맞는 재택,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 근무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알릴 수 있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포장업계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조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뉴스엔지니어링**  
 1996년 5월 31일 창립 26주년

**[주]동서**  
 1975년 5월 16일 창립 47주년

**동원시스템즈(주)**  
 1980년 5월 10일 창립 42주년

**[주]서신**  
 1999년 5월 10일 창립 23주년

**세미산업(주)**  
 1995년 5월 27일 창립 26주년

**[주]신영이노텍**  
 2017년 5월 27일 창립 5주년

**[유]ITW특수필름**  
 1999년 5월 7일 창립 23주년

**[주]영테크필름**  
 2003년 5월 25일 창립 19주년

**[주]유래코**  
 1991년 5월 10일 창립 31주년

**[주]유한팩**  
 1995년 5월 1일 창립 27주년

**울촌화학(주)**  
 1973년 5월 1일 창립 49주년

**재성산업(주)**  
 1998년 5월 1일 창립 24주년

**[주]브이티지엠피**  
 1986년 5월 10일 창립 36주년

**[주]태영캠**  
 1980년 5월 10일 창립 42주년



**박기출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수상**

“동반성장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박기출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가 3월 2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는 산업용 인쇄잉크 및 접착제와 점착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친환경 잉크 및 도전·절연재료 등 전자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기출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상호 동반성장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의 날’은 1964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내 상공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회가 매년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21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됐다.



▲ 박기출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가 3월 2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기출 대표이사가 훈장을 수여받고 있다.

## 세미산업(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수상

‘2022년 혁신·성장 중소기업 유공포상’

세미산업(주)(대표이사 임경호)이 지난 4월 5일 세미산업 회의실에서 ‘2022년 혁신·성장 중소기업 유공포상’ 중소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영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산학연협력, 기술인재 등 분야별 유공자를 포상하고, 이를 통한 혁신 의욕 고취 및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세미산업은 산업경제분야에서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

임경호 세미산업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경영혁신, 품질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미산업(주)(대표이사 임경호)이 지난 4월 5일 세미산업 회의실에서 ‘2022년 혁신·성장 중소기업 유공포상’ 중소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임경호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원시스템즈

### 2차전지용 원통형 배터리 캔 양산 돌입

2차전지용 캔 제조사업 규모 확대

동원시스템즈(대표이사 조점근)가 기존 1만 8650 규격(지름 18mm, 높이 65mm) 원통형 배터리 캔 대비 에너지 용량을 30% 이상 늘린 2만 1700 규격(지름 21mm, 높이 70mm) 원통형 배터리 캔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1월 2만 1700 규격 원통형 배터리 캔의 내식성을 높이는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완제품 생산에 성공하고, 국내 2차전지 제조회사로부터 제품 승인을 획득했다. 이와 동시에 칠곡군에 있는 칠곡사업장에 2만 1700 캔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아울러 배터리 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내 라인을 추가로 증설하는 등 2차전지용 캔 제조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동원시스템즈 칠곡사업장에서 2만 1700 규격 원통형 배터리 캔이 생산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74GWh에서 2026년 173GWh까지 연평균 약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선두회사인 테슬라가 전기차 주력 배터리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등 전기차 스타트업과 볼보, 재규어 랜드로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 담당자는 “늘어나는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 맞춰 공장 및 생산 설비를 증설해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꼽히는 4680 규격 배터리 캔에 대한 차별화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생산설비를 도입해 2차전지 소재부품 기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시스템즈는 2020년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생산라인을 증설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에 2차전지용 캔을 납품해온 엠케이씨(MKC)를 인수해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섰다.

한편 원통형 배터리 캔은 2차전지 배터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패키징 형태로 제조 용이성과 기계적 안전성이 뛰어나다. 2차전지 배터리 포장 형태는 원통형 외에도 각형, 파우치형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12개 시안 확정...12월 23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는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가 결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였다.

먼저 12종의 경고그림(궤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다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경고문구는 12종의 경고문구(궤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궤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다. 궤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전자담배 2종의 경고문구는 현행 문구와 경고그림의 부합성,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구를 유지하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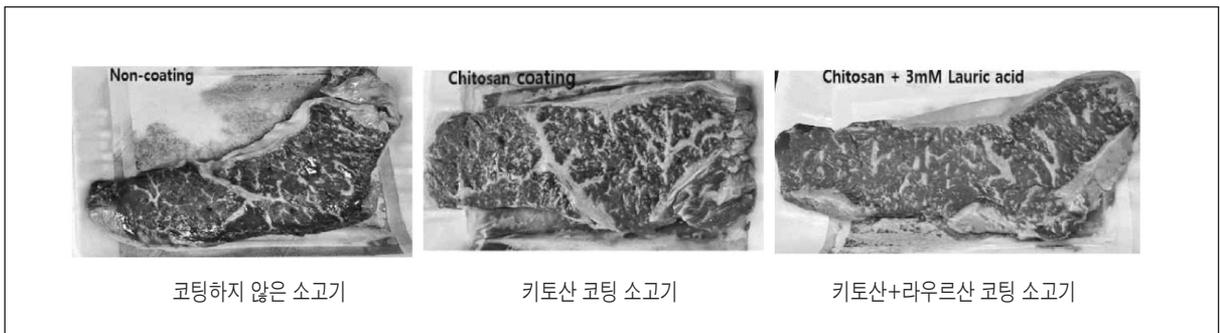
## 농촌진흥청

### 식품원료 이용 코팅기술, 소고기 품질유지 효과

고기 변색, 세균 증식 막아...친환경 포장기술 기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육류 포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학 첨가물 없이 식품 원료를 이용한 코팅 기술이 소고기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식품 원료인 키토산과 라우르산 혼합 용액으로 소고기를 코팅(투명씌움)했을



▲ 소고기 코팅처리 방법에 따른 고기색 변화(2℃ 냉장 보관 3주 후)

때 품질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키토산은 고분자인 키틴을 정제하여 만든 물질로 항균성이 보고되었고, 라우르산은 코코넛오일 등에서 얻어지는 지방산 성분으로, 최근 항바이러스성, 항균성 기능이 알려졌다.

연구진은 한우고기를 코팅하지 않은 무처리와 2가지 코팅 처리(키토산 코팅, 키토산+라우르산 코팅)로 구분한 후 랩으로 포장해 3주 동안 냉장상태(2도)에서 품질유지 항목을 비교했다. 식품을 단기보관(1~2주)하기 위해 폴리에틸렌(PE) 재질의 비닐로 표면을 감싸 보관했다.

3주 후 고기색의 변색 정도를 비교한 결과, 키토산+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가장 낮았으며 키토산 코팅 소고기, 일반 랩 포장 소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신선고기의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인 지방 산화도와 단백질 산패도는 키토산+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포장 소고기보다 각각 50%, 62%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패 원인인 미생물의 성장도 키토산+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 포장 소고기보다 낮게(총균수 48%, 슈도모나스 62%) 나타났다.

일반 랩포장 소고기의 냉장 유통기한은 약 14일 이내인데 반해 키토산+라우르산 코팅 소고기는 저장 21일째에도 신선고기 품질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키토산+라우르산 코팅 용액이 랩포장 소고기의 품질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식육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미트 사이언스(Meat Science)' 2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친환경 포장기술 개발과 소고기 보관 방법에 키토산+라우르산 코팅 용액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코팅 기술은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를 이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재는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이지만 향후 소고기 품질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포장·보관 기술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고품질 인증체계 구축공동 추진

자원순환산업인증원(원장 강용)은 4월 5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 KOTITI시험연구원(원장 이상락),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와 함께 생산·소비단계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고품질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 폐플라스틱의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국내·외 각종 플라스틱 규제 환경 속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의 시험분석·평가·인증 및 기술 협력 등 고품질 재활용을 함께 촉진하고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플라스틱이 7대 핵심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업계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인증체계 구축 및 관련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등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고품질 재생원료 이용 확대를 위한 재생원료 추적성 인증체계 기반 마련, 재활용 사용비율 계산법과 표시 강화 등 인증제도를 정비해 산업계의 재활용제품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용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제품의 기술혁신 및 품질기준 수립과 산업통상자원부의 GR 인증 취득을 지원해 산업계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K)-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인증은 재활용 제조기술을 개발해 재자원화를 통해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정 임의 인증제도를 의미한다.



▲ 왼쪽부터 강용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원장, 이광욱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이상락 KOTIT시험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한·중·일 수출입 파렛트 재사용 활성화 연구’ 수행**

수출입 파렛트 재사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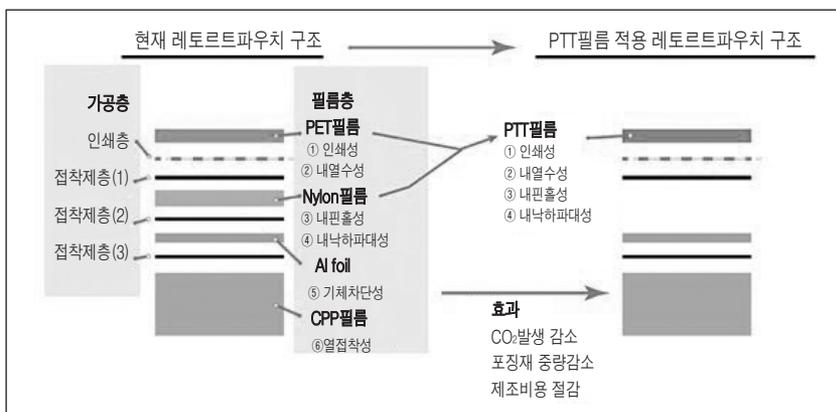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 이하 KPCA)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한·중·일 수출입 파렛트 재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4월 12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사업은 ▲한·중·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출입 파렛트의 재사용 시스템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2단계 실증사업 준비, ▲한·중·일 재사용 파렛트 사용 실태 파악, ▲재사용 파렛트 추적과 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 ▲한·중·일 재사용 파렛트 실증실험을 위한 준비작업,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실무 대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수출입 물류에 활용되는 파렛트 재사용 관련 문제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현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전남테크노파크****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를 위한 지역기업 R&D 지원**

케이씨(주)와 Bio-PTT 활용한 포장필름 상용화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2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과 관련하여 전남도에 위치한 케이씨 주식회사(전남 목포 소재)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탄소저감형 가공식품포장 레토르트파우치 필름개발’ 과제가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상용화 연구개발 과제 개요도

케이씨주식회사를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이폴리텍주식회사(여수), 순천대학교(순천),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여수) 등 산학연이 참여하여 2025년까지 3년간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품용 포장필름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케이씨는 기초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의 중견기업으로 신소재 원료부터 필름사업까지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필름사업분야의 경우 다층 공압출 이축연신필름을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제인 Bio-PTT 필름의 경우, 현재 식품포장용 레토르트파우치에 사용되는 다층의 필름(PET필름+접착층+ Nylon필름)을 단층(Bio-PTT필름)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포장재와 비교하여 중량 감소(24%이상 감량), 제조비용 감소(26%이상 절감), CO2 발생(81%이상 저감)을 감소시키는 등 상업성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세계 최초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라 할 수 있다.

Bio-PTT(Bio-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는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친환경 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Bio함량 37%이상)이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이번 기술개발 과제와 더불어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존의 석유화학 소재를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과 연료(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전남도의 화이트바이오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올해 말 준공될 여수 삼동지구의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지원센터를 통해 화이트바이오 분야 시제품 생산, 인증 지원, 기업 R&D 지원 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한화솔루션

### 재생 소재로 친환경 포장재 시장 진출

여수공장 출하 제품 포장에 '재생 포장백' 우선 적용

한화솔루션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재활용 폴리에틸렌(recycled PE, rPE) 사용 확대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자사 제품 포장에 rPE를 적용한 포장백을 사용하고 향후 각종 포장재 시장을 대

상으로 rPE 기반의 재생 소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은 4월부터 rPE 포장백을 여수와 울산 공장에서 출하되는 자사 제품 포장에 사용했다. rPE는 각종 폐기물에서 추출한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 원료로 가공한 소재다. 한화솔루션은 기존 산업용 포장백에 쓰이는 일반 폴리에틸렌(PE) 소재를 재생 소재인 rPE로 대체해 자원 순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EVA(고탄성 화학 소



▲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은 4월부터 rPE 포장백을 여수와 울산 공장에서 출하되는 자사 제품 포장에 사용했다.

재) 등 자사 제품에 쓰이는 산업용 포장백의 80%를 rPE 포장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한화솔루션의 rPE 포장백 상업화는 소재 개발부터 포장백 적용까지 전 과정에서 한화솔루션 자회사인 한화킴파운드(주), 재생플라스틱 제조기업인 (주)대우R&C, 포장백 제조기업인 (주)삼화수지, 신림산업주식회사(SLP)가 협력 체계를 통해 달성한 결과물이다.

한화솔루션은 산업용 재생 포장백을 시작으로 생필품 포장재, 화장품 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rPE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분야의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원재식 PO(폴리올레핀) 사업부장은 “한화솔루션 사업장의 rPE 포장백 사용량이 연 1,600t까지 늘어나면 승용차 620대분의 연간 탄소배출량인 2,100t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며 “rPE 소재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LG화학-이너보틀-CJ대한통운

###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MOU 체결

자원순환생태계 구축 완성

LG화학은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국내 혁신 스타트업인 이너보틀(Innerbottle), CJ대한통운과 함께 ‘2022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화학 이민중 Sustainability1 담당, 이너보틀 오세일 대표, CJ대한통운 허신열 경영리더가 참석했다.



▲ LG화학과 이너보틀(Innerbottle), CJ대한통운이 '2022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CJ대한통운 허신열 경영리더, 이너보틀 오세일 대표, LG화학 이민중 부문담당이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이 구축하는 에코 플랫폼은 ‘소재(LG화학) → 제품(이너보틀) → 수거(CJ대한통운) → 리사이클(LG화학·이너보틀)’로 이어지는 구조로, LG화학이 제공한 플라스틱 소재로 이너보틀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사용된 이너보틀의 용기를 CJ대한통운이 회수한 뒤 다시 LG화학이 이너보틀이 원료 형

대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LG화학의 플라스틱 소재만으로 단일화된 용기를 전용 시스템을 통해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원을 빠르고 완벽하게 100% 재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너보틀의 온라인 화장품 리필숍 '이리온(Ireon)'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 리필을 신청한 뒤 현관 앞에 사용한 제품을 놓아두면 CJ대한통운 택배 기사가가 이를 수거하고 새로 충전된 리필제품을 배송한다.

이너보틀은 수거한 제품 용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세척작업을 진행한다. 수거된 용기 중 더 이상 재사용하지 못하는 용기는 LG화학이 구매한 후 리사이클링을 통해 깨끗한 원료로 재탄생한다.

기존 오프라인 리필숍은 소비자가 리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용기를 들고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리온(Ireon)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릭 한번만으로 제품 리필과 용기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리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이너보틀 솔루션이 적용된 전용 리필 용기에 담겨있다. 외부 플라스틱병 안에 풍선처럼 수축하는 실리콘 파우치를 이중으로 넣은 친환경 용기로, 내부 파우치에만 내용물이 담기기 때문에 외부 플라스틱 용기는 간단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용기의 경우 일상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하기 때문에 쓰레기 저감 및 탄소 감축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CJ대한통운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생태계 구축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석유화학 사업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친환경 제품의 사업화를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이너보틀의 실리콘 파우치를 LG화학이 생산하는 NB라텍스로 대체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재활용이 불가능한 OTHERS 화장품 외 용기를 LG화학이 생산하는 재생 원료인 PCR(Post Consumer Recycle), ABS(고부가합성수지), EP(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할 계획이다.

## LG생활건강

### 제품에 ESG 경영 담은 '클린뷰티 인사이드' 시스템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등 클린뷰티 추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화장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ESG 경영 방침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클린뷰티 항목과 기준을 정의하고 측정해 지속 관리하는 '클린뷰티 인사이드(Clean Beauty Inside)'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LG생활건강 클린뷰티인사이드 심벌

클린뷰티는 파라벤 무첨가,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비건(Vegan) 등과 같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화장품을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ESG 경영 확대와 기후변화, MZ세대의 가치소비와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뷰티 트렌드다.

LG생활건강은 2021년 업계 최초로 클린뷰티 트렌드를 지구환경(Planet Beauty), 건강(Skin Health), 과학(Clean Performance)과 상생(Responsibility)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고자 클린뷰티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클린뷰티 연구소는 화장품 포장재를 4R(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 Reduce·감량, Replace·대체) 관점에서 연구하고 합성 원료를 대체한 천연 유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개발하며 탄소 발생을 줄이는 워터리스 제형과 에너지 저감 공정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정무역 원료의 발굴, 동물 유래 원료의 미사용, 폐기되는 천연자원의 업사이클링 및 유기 농업의 지속가능한 천연물 소재 개발 등 지속가능하며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 환경주의) 없는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구 환경, 인체 건강, 정직한 과학, 이웃과의 상생 등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12개의 세부 항목별 가중치를 더해 정량화한 클린뷰티지수(Clean beauty index)를 독자 개발했다.

2022년 빌리프, 비온드, 더페이스샵 등 클린뷰티 브랜드에 우선 적용해 제품별 지수를 측정하고 기준을 높여 이에 걸맞은 제품들을 출시할 계획이며 향후 전 브랜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주영 클린뷰티 연구소장은 “클린뷰티는 지구, 이웃과 상생하면서 나와 후손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키워가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린뷰티 인사이드는 제품 속에 클린뷰티를 내재화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으로써 과학적 사실과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고객 경험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농심

## 동지냉면 포장 간소화

4개들이 묶음포장 방식 띠지로 변경

농심이 동지냉면 포장 간소화에 나섰다.

농심은 동지냉면 4개들이 묶음포장 방식을 기존의 비닐 재포장에서 띠지로 변경했다. 지난해 6월 간소화를 추진한 생생우동에 이어 두 번째다.

새로운 동지냉면 포장은 스티커로 된 띠지를 붙여 4개 제품을 결합시키는 형태다. 농심은 재포장 방식 변경으로 연간 약 27톤의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생생우동과 동지냉면에 우선 적용한 이유는 면이 트레이에 담겨있어 띠지 포장으로도 유통 과정에서 적치와 진열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심은 친환경 라면포장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무과마탕면의 묶음포장을 투명 비닐로 교체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난해에는 동지냉면의 필름 포장을 단일소재로 교체하고, 큰



▲ 농심은 동지냉면 4개들이 묶음포장 방식을 기존의 비닐 재포장에서 띠지로 변경했다.

사발면의 용기를 PSP재질에서 종이로 바꾸는 등 재활용 용이성 향상에 힘썼다.

농심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재 적용은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친환경은 필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 힘쓰는 농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아모레퍼시픽

### 현대건설과 협약 체결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한 ESG 경영

아모레퍼시픽은 현대건설과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소재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건축 자재 및 디자인 개발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분쇄물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혼합한 건설용 테라조 타일을 제조하여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한다.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업사이클링 테라조



▲ 아모레퍼시픽은 현대건설과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소재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타일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여 조경 시설물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03년 시작한 ‘이니스프리 공병수거 캠페인’을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그린사이클’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2021년까지 총 2,354톤의 화장품 공병을 수거했다.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회수하여 리사이클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예술 작품 등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 한국콜마

### 화장품 패키징전문기업 ‘연우’ 인수

인수가 2,864억...글로벌시장 공략

글로벌 화장품 패키징전문기업 ‘연우’를 인수한다. 인수는 2,864억 원이다.

한국콜마는 연우 인수를 통해 화장품사업의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시장에서의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를 비롯해 글로벌 화장품 제조기업인 미국 PTP, 캐나다 CSR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에서 연우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콜마는 4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주)연우의 인수 계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우는 1994년 설립된 화장품 종합포장재 전문기업으로,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국내 최초로 화장품용 디스펜서 펌프를 국산화했으며, 외부 공기 유입의 완벽한 차단을 통해 용기 내 내용물의 산화를 방지하는 ‘에어리스 펌프’도 국내 최초로 상용화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콜마는 연우 인수를 발판 삼아 국내외 화장품 업계에 최대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용기 화장품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친환경 화장품 용기인 종이튜브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던 만큼 화장품 용기 제조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우와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연우는 지속성장 경영을 위해 3R(Recycle, Refill, Reduce)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용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추적·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PLUS(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를 획득하기도 했다.

글로벌사업에서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국콜마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R&D를 바탕으로 7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도 로레알, 에스티로더, P&G, 메리케이 등 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50여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연우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합쳐지면 글로벌 사업에서도 높은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우는 지난 3년 평균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한국콜마는 기존에 연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인수 후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룹 차원에서 TFT를 구성해 관계사간 협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다각화 및 해외 사업 등이 포함된 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수립,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한국콜마는 창립 이래 미래가능성을 보고 공급망 혁신을 지속하며 업계를 선도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연우 인수는 K뷰티 산업의 공급망을 넘어 글로벌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리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